

원(ウォン)화의 연구

2012.11.09

日本經濟新聞 朝刊 제5면

통화당국자는 한국의 환율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에 물었다.

Q. 요 수개월간, 원화 강세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A.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원화가 상승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외부에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Q.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수출 기업도 있다.

A. 높은 통화 (가치)로 채산성이 악화하는 기업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환율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다. 기업은 원가 삭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개혁 등에 의한 기업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Q. 원화 안정책을 취했던 시기도 있다.

A. 과도하게 평가된 환율 수준을 적정 라인으로 되돌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던 것을 원화안정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시장개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어느 국가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도 있다.

Q.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인가?

A.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고부가가치의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Q.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A. 기업 우대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용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